

# ‘불법당원 모집’ 수사 공무원 기소 범위 주목

### 광주지검 수사 마무리 단계...공무원 기소엔 신분 박탈

### 광주시민단체 “가담 정도 고려 신중한 기소” 목소리

광주시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직원 등의 4·15 총선 관련 불법당원 모집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범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위주의 무차별적 공소유치보다는 범죄가담 정도 등을 고려한 신중한 기소를 기대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은 최근 사실상 종결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에서도 공무원 중 핵심가담자 4명만 기소하고, 상급자 지시 등에 의해 업무를 진행한 공무원들은 기소하지 않는 등 기소 범위를 최소화한 바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핵심 가담자와 범죄 주도자에 대한 엄중 수사와 함께 엄벌을 내리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갑작적 압박이나 인간관계에 따라 순간적으로 단순 일탈한 공무원까지 기소해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기소(재판)

시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2일 광주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해 11~12월 사이 4·15 총선 관련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집에 연루된 광주시 공무원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수십 명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들은 당시 4·15총선 광주 동남갑 출마 예정자였던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돕기 위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당수는 상급자의 강압이나 수십 년 공직생활 동안 맺은 인간관계에 따른 부탁 등을 뿌리치지 못하고, 당원모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핵심 가담자로 꼽히는 이들 중 상당수는 인사해택 등을 누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기소범위와 대상 등을 구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전문 선거 운동원으로 꼽히는 H씨와 남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정치인 S씨, 광주시 산하기관 Y씨, 시 공무원 C씨 등 4인방을 비롯한 10여명을 핵심 가담·중단 모집책 등으로 주목하고, 조직적 참여 여부 등을 밝히는 데 마지막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정 부시장과 고교 동문이거나 같은 고향 등으로 연결돼 있으며, 발탁 승진 등 인사해택까지 누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 사례로, 정 부시장 주도로 최근 단행된 광주시 인사에서도 핵심 심복으로 꼽히는 C씨가 초고속 승진을 해 입살에 올랐다. 2014년 승진한 C씨의 동기는 모두 40명으로, 이들 중 C씨를 포함한 2명만이 이번 인사에서 승진했다. 이들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진자 10여 명은 모두 2012년과 2013년 승진자들이었다.

의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C씨는 정 부시장의 후배로, 눈에 띄는 업무 실적이 없는 데도 이번 인사에서 동기들 중 가장 빨리 파격적으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핵심 가담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반면 단순 일탈자의 기소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참여자치 21 임선진 사무처장은 “핵심 가담자에 대한 엄벌은 당연하지만, 상급자 강압 등에 의해 순간 일탈 행위를 한 공무원까지 기소하는 것은 자칫 과도한 기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도 있다”면서 “만약 단순 일탈 공무원에 대한 가혹한 내부 징계 또는 사법조치가 이뤄진다면 시 공무원 노조차원에서라도 선처를 탄원하는 등 구제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박재만 대표도 “인사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무원 특성상 거듭된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상 참작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찰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오주섭 사무처장은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가 검찰조사를 받은 공무원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종제 부시장은 광주일보 취재진에게 “직원에 대해 당원모집을 강요하거나, 검찰조사와 관련해 진술을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달뜨기 20:26  
해질 17:41    달집 09:37

체감온도 '뚝'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0/5	보성	구름많음	-1/4
목포	구름많음	1/3	순천	구름많음	1/5
여수	구름많음	1/6	영광	구름많음	-1/4
나주	구름많음	1/5	진도	구름많음	2/5
완도	구름많음	2/6	전주	흐림	-1/4
구례	구름많음	-1/4	군산	흐림	0/4
강진	구름많음	0/6	남원	흐림	-2/3
해남	구름많음	0/5	축산도	구름많음	3/5
장성	구름많음	1/5			

◇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안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면바다(북)	북서~북	1.0~2.5	북서~북	1.0~2.0
	면바다(남)	북서~북	1.0~2.5	북서~북	1.0~2.0
남해서부	안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면바다(대)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면바다(동)	북서~북	1.0~2.0	북~북동	1.0~2.0

◇ 생활지수

감기	높음
뇌졸중	높음
미세먼지	좋음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56	03:36
	21:35	16:24
여수	04:31	11:06
	17:07	23:13

◇ 주간 날씨

14(화)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	☁	☁	☁	☀	☁	☀
-1/5	-2/5	-2/6	-1/6	-2/8	-1/7	0/6



5·18기록관 찾은 대구 학생들    대구지역 초·중생들로 구성된 ‘해봄체험학습단’이 12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을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해봄체험학습단은 하룻동안 국립5·18민주묘지 등 사적지들을 둘러봤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경찰, 설 명절 앞두고 사이버 범죄 주의보 발령

경찰청이 설 전후로 상품권이나 여행상품 등을 싸게 판다는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며 사이버 범죄 주의보를 발령했다. 경찰청은 “13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승차권·상품권 등

설 관련 상품 판매 빙자 사기 ▲렌터카·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사기 ▲공연 티켓 등 구매 대행 빙자 사기 ▲명절 인사택배 조화를 가장한 스미싱·메신저 피싱 ▲SNS 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사이버 금융 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지난해 발생한 인터넷 사기 건수는 13만 6074건으로, 2018년(11만2000건)보다 21% 늘었다.

경찰청은 ‘사이버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인터넷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이버법’에서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제품 결함 파열 사고

###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 16만여대 강제 리콜

소방청은 제품결함으로 “지난해 잇따라 파열사고가 발생한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와 관련해 제조사인 신우전자에 강제 리콜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이 회사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생산해 설치된 14개 모델로 총 16만990대에 이른다.

제조사는 이들 결함제품을 신제품으로 무상교환하고 이미 교체한 소비자에게는 비용을 환급해야 한다. 또 동일한 형식승인 제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가스레인지 후드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화액을 분사해 불을 끄도록 하는 장치다. 리콜대상 제품은 불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열해 안에 든 소화약제가 새어 나오는 문제가 있었다.

이 회사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한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전국 1428개 아파트 단지에 모두 68만7977대가 설치됐다.

소방청은 이 중 91개 단지에서 1988건의 파열사고가 발생했다고 집계했다. 파열 사고가 난 제품 가운데 99%가 2011년~2014년에 생산된 제품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 남구 조직개편 추진... 업무 통폐합 중점

광주시 남구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 등을 담당하고 있는 대외협력관실 폐지와 타부서와 업무 통폐합을 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홍보 전담조직 신설,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에 위한 미래 산업전담팀 구성,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등에 따른 청소행정 전담 조직 강화, 주

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한 주민자치과 구성, 인공지능 산업 관련 부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위해 각 과별로 직원들에게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오는 23일까지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직관리 위원회의 심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해경청, 역대 최대 규모 1609명 채용

해양경찰청은 “올해 경찰관과 일반직 등 1609명을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현장 중심 인력확보를 위해 추진되며 역대 최대 규모다.

채용 대상 중 경찰관은 총 1526명으로, 모집 분야는 경정 직급 5급 공채 1명, 경감 직급 변호사 3명, 경위 직급 간부후보와 항공조종 등 53명, 순경 공채 566명, 합정요원·해경학과 등 경력채용 903명 등이다.

일반직 채용 규모는 총 83명으로, 모집 분야는 공업 연구관 1명, 해양오염방지 9급 35명, 해상교통관제 9급 30명, 시설 9급 1명 등이다. 조직기능 강화를 위한 임기제(5~9급)도 16명을 채용한다. 해경청은 우수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올해 3차례에 걸쳐 채용할 예정이다. 제1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공고는 오는 2월 27일께 있을 예정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